

제3회 IP금융포럼

2021.6.29.(화) 14:30부터 보도
마포 프론트원

축 사

2021. 6. 29.

금융위원회 사무처장
김 태 현

※ 본 원고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. 인사말씀

안녕하십니까.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현입니다.

청년창업 1번지 '프론트원'에서,
'청년기업을 위한 IP금융'이라는 주제로,
제3회 IP 금융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귀중한 자리를 제안해주신
김용래 특허청장님께 감사드리며,
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
발표자 및 참석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
2. 그동안의 동산·IP 금융 활성화 노력 및 성과

그동안 정부는 금융권이
부동산담보 등 보수적 금융관행에서 탈피하여
기술력, 미래성장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
'혁신금융'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왔습니다.

그 결과, 혁신금융으로 전환하는데 있어
중간 연결고리 역할*(bridge)을 담당하는 동산분야,
특히 그 중에서도 IP 금융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

* 부동산담보 → 동산담보 → 기술력·미래성장성 위주 여신공급으로 전환의 중간단계

2018년말 약 7천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동산담보대출은
2년만에 3조원을 넘어섰고,
이 기간중 IP담보대출은
3천억원 수준에서 1조 4천억원 수준으로 4배 이상 증가하며
명실상부하게 동산담보대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.

3. 청년창업에 있어 IP 금융의 중요성

이러한 IP담보대출의 증가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,
IP와 IP금융 간의 선순환 관계 속에서,
IP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무엇보다, IP는 창업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줍니다.

IP는 그 자체로도 담보력을 갖춘 재산권(resources)이자,
해당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표상하고 있어
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게 됩니다.

다음으로, 청년창업가의 경영권을 지키고 기업가치는 높이는
무형의 방패입니다.

다른 기업 또는 투자자의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며,
M&A Exit 과정에서도 청년창업가의 협상력을 높여줍니다.

마지막으로, IP는 해외진출의 기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.

IP는 해외 AC/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
사업무대를 넓히고 더 큰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
축매가 될 수 있습니다.

영업방법도 특허(BM 특허*)가 되는 시대입니다.
담보물이자 투자대상인 IP가 증가하면 IP금융이 활성화되고,
다시 IP 취득유인이 제고되는 선순환 상생의 생태계는
앞으로 더욱더 견고해져야 합니다.

* Business Method. 영업방법이 IT 등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 특허의 대상이 됨

※ [사례] 美 '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'은 여러개의 투자신탁 자산을 모아 복수의
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자금운용 방식으로 '93년 세계 최초로 BM 특허 취득

4.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

금융위원회는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, IP금융이 청년창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먼저, IP 분야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고 있습니다.

특허청과 4년간('19~22년) 5천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펀드(IP펀드)를 조성하여,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수익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다음으로, IP 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.

혁신기업의 IP 개발·이전·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3,000억원 규모의 IP 보증(신보)을 제공하고 있으며, 올 하반기 예정된 TECH평가 체계개편 과정에서도 은행들의 IP금융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

마지막으로, 디캠프·핀테크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기업의 IP금융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.

디캠프가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에게 IP 및 IP금융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 IP출원·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, 3,000억원 규모('20~'23년)의 핀테크혁신펀드를 통해서도 우수 IP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5. 맺음말

오늘 이 자리는 '동산금융'과 '청년창업'이
금융생태계 속에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
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.

오늘 이 자리가,
IP금융이 청년창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재조명되고
그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금융위원회도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
IP금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